

이책!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과학 4.0

키워드로 살펴보는 과학기술의 현재와 미래

인공지능, 자율주행, 블록체인, 전자차 등등. 삶의 변화를 주도하는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류를 어떤 미래로 이끌까.

저자는 책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과학 4.0' (북루덴스 펴냄)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고 좀 더 다양한 세계를 바라보고 과학기술이 구현할 미래의 기회와 위험이 공존한 분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책은 선진국이 제시하는 21세기 성장 동력을 크게 5가지 주제(▷모빌리티 ▷우주·로봇·소재 ▷정보통신 ▷생명공학

▷기후위기·재생에너지)와 35가지 키워드로 과학기술 혁신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한다. 35가지 키워드는 전자차, 자율주행, 초고속 모빌리티부터 인공지능, 로봇, 인공지능, 사물인터넷과 통신 인프라, 블록체인, 메타버스, 바이오칩, 차세대 항암제, 에너지 저장장치와 스마트 그리드, 핵융합발전, 우주 태양광발전, 수소경제 등이 있다.

저자는 '시작하며'에서 "이 책은 현실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과학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더불어 현재의 진행 지점과 과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다섯 가지 핵심 키워드를 차

근차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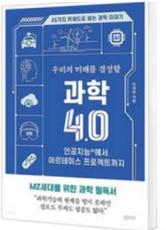
그의 글을 옮기면 저자는 첫 번째 키워드 '모빌리티'에 대해 "세 번째 변곡점은 지금"이라며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수소선박, 수소비행기 등 연료 체계의 변화와 도심항공 모빌리티 등 새로운 모빌리티의 등장, 그리고 자율주행은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고 말한다.

네 번째 키워드 '생명공학'에 대해선 "크리스퍼 혁명으로 표현되는 유전공학의 발전은 이미 코로나19 백신을 통해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냈다"며 "또한 전자공학, 소재공학, 나노공학과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바이오칩, 유전자 치료, 차세대 항암

제 등 새로운 의료기술의 등장 또한 주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섯 번째 키워드 '기후위기와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선 "기존의 탄소 기반 산업 체계에서 기후위기의 극복은 아주 어려운 도전 과제이기도 하다"며 "기후위기의 해결과 관련한 과학기술의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이유"라고 피력했다.

출판사는 "급격한 변화에 직면한 MZ세대에게 이 책은 가고자 하는 미래를 확실하고도 명확하게 밝혀줄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박재웅 지음. 1만9500원.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재생에너지 산업과 수소산업, 그리고 전기차 산업은 전체 경제의 지형을 바꿔놓을 것이고, 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향후 그 기업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겁니다. - '시작하며' 중 -

오랜 세월 바다의 길목 지켜온 포구

서재철의 '제주 포구'

포토갤러리 자연사랑미술관 서재철 관장이 옛 모습의 '제주 포구' 사진을 꺼내 책으로 묶었다. '바다의 길목에서 섬을 지키다'란 부제를 단 '제주 포구' (한그루 펴냄)다.

책엔 제주시 용담1동 포구 '용수개맛'을 시작으로 화북의 '별도포'까지 저자가 제주섬을 시계 반대방향으로 한 바퀴 돌며 촬영한 72곳의 옛 포구 사진이 담겼다.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의 포구는 사람들이 다른 세상을 드나

드는 길목이었다. 생생한 생업의 현장이면서 오랜 세월 바다의 길목을 지켜온 포구는 이제 그 옛 모습을 많이 잃었다.

책에선 지금은 찾아볼 수 없지만 옛 포구의 모습에서부터 소금밭 같은 생업의 현장, 도대, 봉수, 연대 등의 방어시설, 그리고 척박한 삶 속에서 안녕을 기원하던 신당의 모습들을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책의 서두엔 포구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제주 포구 위치'가, 말



미엔 제주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제주 포구의 모습과 역사를 담은 '기억 속의 제주 포구' (강영복 글)가 실렸다.

저자는 제주 포구를 통해 "제주 문화와 제주인의 삶을 떠올리는 '징검다리'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한다. 3만원. 오은지기자

"돌과 삶 일구며 제주문화 지켜온 장인들"

제주도문화원연합회 '제주 돌쟁이'

오랜 세월 제주 돌과 함께 삶을 일구며 제주문화를 지켜온 장인들의 이야기가 한 권의 책에 담겼다. 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가 최근 발간 소식을 전해 온 '제주 돌쟁이'다. 책은 열두 명의 장인과 인터뷰해 구술·채록한 대화를 바탕으로 구성됐다. 제주 돌문화의 최전선을 지켜온 이들의 삶과 일을 생생하게 전한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돌 작업에 사용하는 연장의 명칭과 용어는 따로 항목을

두고 그림을 곁들여 설명했다.

인터뷰 참여자는 돌담 장인 안기남, 원담 장인 이방익, 대한민국 석공예 명장 송종원, 비석돌 장인 조이전, 비석 각자 장인 고정팔, 초가장 축담 장인 강창석, 돌창고 장인 홍의백, 거옥대(방사탑) 장인 현대성, 돌 벌르는 장인 김상하, 돌하르방 조각 장인 김남흥, 옹기 돌가마 장인 김정근, 돌담 장인 조환진이다. 제주도문화원연합회 강명연 회장은 발간사에서 "세월의 흔적을



머금고 있는 제주 돌담의 경관적 의미와 가치를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제주의 돌담은 구멍이 송송하여 느슨해 보이지만 그 빈 공간을 품고 있는 것은 세찬 바람이 빠져 나갈 수 있는 장인들의 지혜와 경험의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비매품. 오은지기자

새로나온 책



▶역사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장세노 지음, 주진오 옮김)=역사는 우리에게 아무런 해답도 제공하지 못하며, 우리가 해야 할 싸움을 대신해 주지도 않는다. 역사는 그 자체로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결과는 그들의 이상을 위해 투쟁하는 인간들, 즉 '진정한, 살아 있는 인간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포북. 1만8000원.



▶탄소버블(박진수 지음)=탄소중립시대 현대인을 위한 기후 안내서. 세계 각국을 비롯한 유수의 기업들은 2050년까지 이른바 '넷제로'를 달성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책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인류가 경제적으로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변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루아크. 1만4000원.



▶교사를 위한 마음공부(류성창 지음)=현직 교사가 전하는 행복한 교직생활을 위한 20가지 심리법칙. 행복한 교직생활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자는 현직 교사로서 자신의 고민은 물론, 동료 교사들의 고민을 듣고 함께 대화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하게 됐고 그 방법을 심리학에서 발견했다. 지노. 1만7000원.



▶시간을 멈추는 휴대폰(플로랑스 세네르 메츠 지음, 오승민 그림)=유한한 시간 속 긍정적인 마음을 알려 주는 동화. 시간을 멈추고 싶다는 상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 독자의 로망을 실현시켜 주는 이야기이자, 어린이에게 긍정적인 마음의 중요성을 알려 주는 동화. 푸른숲주니어. 1만2000원.



▶그림책 생활(서효인 지음)=아이들에게 기대어서 간다. 안 될 일도 다 잘될 판이다. 너를 사랑하며, 그림책을 읽으면서. 저자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그림책을 읽으면 된다"며 우리에게 그림책을 좀더 적극적으로 찾아 읽는 "그림책 생활"을 제안한다. 어른은 아이와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 대답은 그림책 안에. 달. 1만5000원.



▶열세 살의 걷기 클럽(김해정 지음, 김연제 그림)=서로 다른 속도와 걸음으로, 함께 걷는 아이들의 우정과 용기. 이 책은 속도 경쟁을 중요한 가치인 것처럼 여기는 시대,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과 사람의 거리가 훌쩍 멀어진 바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야기다. 사계절. 1만2000원. 조성윤기자

Advertisement for the 4th Jeju Women's Family Research Institute inauguration. Features a photo of Moon Sun-deok and text celebrating the inauguration.

Advertisement for Hanra Ilbo's 'Great Trend' (대勢) campaign. Lists various awards and achievements, including 'Best Newspaper' and 'Bes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for Jeju City Rock Bowling Center. Features images of bowling lanes and bowling balls, and list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center.